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 가능성 탐색

강혜정(姜惠正)*

강성현(姜聖賢)**

임은미(任銀美)***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에 주목하여, 두 가지 동기 수준에 따른 군집을 확인하고 각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509명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및 다변량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학업동기와 진로동기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세 가지 군집이 존재하였고, 각 군집 간 진로태도 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 가지 군집을 학업동기의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이 높고 진로동기 하위요인이 모두 낮은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 학업동기의 무동기가 특징적으로 높은 ‘높은 무동기’ 집단, 학업동기의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동기가 높고 진로동기 하위요인이 모두 높은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진로태도 성숙도는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 ‘높은 무동기’ 집단,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각 군집별로 성, 성적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학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나타난 군집 특성 및 차별적인 진로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업동기, 진로동기, 진로태도 성숙도, 군집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 제 1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 2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생애에 걸친 학습과 진로설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학교 교육 또한 본격적인 진로지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대학 입학 수시모집 전형 비율의 점차적 증가, 진로교육법 제정,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배치 등은 중등학교 진로지도의 총체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역동적인 현황들이다.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봉환, 2015). 그만큼 이제 학교는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명확한 성과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활동 대부분을 성공적인 교과교육을 위해 할애해 왔던 학교 현장에는 매우 큰 도전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지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학습지도에 기울이던 노력과 성과 또한 퇴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의 생애에서 진로발달과 학습발달은 별개의 것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적 투입은 학교나 교사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진로특성을 학습특성과 더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높은 학업성취와 현명한 진로선택을 동시에 요구하는 대학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이 자신의 전공 및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미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삶을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 진로선택을 위한 개인내적 요인인 진로성숙이 학업성취보다 결코 소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을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탐색활동은 아직 학생부종합 전형이나 일부 수시모집 전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에 그치고, 나머지 시간을 학업에 할애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고등학교 교육이 학업지도에 치우쳐 진로성숙을 위한 활동을 등한시한 결과 일반 대학생 뿐 아니라 소위 '명문대학'에 합격한 대학생조차도 진로성숙 정도가 낮고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강유선, 조은애, 김양희, 2011; 손진희, 2010; 정철영, 2011), 이러한 경향은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최화영, 2015).

진로 성숙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이 동일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이며,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게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준비도이다(Crites, 1978). 가령 진로태도 성숙도 중 결정성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목적성이

높은 학생은 즉각적인 욕구보다는 현실과 사회적인 수용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으며, 확신성이 높은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안정감을 느끼고,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준비성이 높은 학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많고, 독립성이 높은 학생은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스스로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주체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이기학, 한종철, 1997). 따라서 이러한 진로태도 성숙도는 진로선택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시켜 현실과 목표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시기(Super, 1953)에 해당하는 고등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이며,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과 상담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유미, 권윤정, 2015; 신경일, 김서정, 2016; 조은숙, 2011 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업동기와 진로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별 변인간의 관계나 각 변인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만을 밝히고 있어서, 효과적인 진로개입을 위해 개개인의 차별적 특성에 주목해야 하는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이예진, 이기학, 2010). 학생을 지도할 때 교사나 상담자가 대면하는 대상은 추상적인 변인이나 변인간 관계가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보다 여러 변인의 통합체인 개별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기도 하고, 학업동기와 학업성취도는 높지만 진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여 막연함을 호소하기도 하며, 진로탐색을 통해 잠정적인 진로가 결정되면 학업에 대한 의미를 찾고 관심이 생겨 학업동기가 높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전생애적 진로발달과의 관련 속에서 학교학습의 의미를 찾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두 동기를 함께 고려함에 따르는 군집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군집별 특성을 이해하여 그에 대한 차별적 처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학생 군집을 확인하고, 각 군집별로 성, 성적, 학년 분포 및 진로태도 성숙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군집의 특성을 규명하고, 아울러 군집별 진로태도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적인 처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 연구문제 1.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조합에 따른 하위 군집이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2.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에 따른 하위 군집분포가 성, 성적,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에 따른 하위 군집별로 진로태도 성숙도

가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업동기

1) 개념

학업 동기는 학교에서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이미 학습한 행동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내적 기제이다(김아영, 2010). 학업동기에 대한 자기결정성 이론은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여 대립적인 관계로 바라보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내재적으로 동기화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면서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은 과제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난 후 긍정적 정서를 느끼면서 만족감을 경험하고 학업에 대한 자율적 동기를 높여갈 수 있다고 하였다(Ormrod, 2008). 따라서 한 개인은 외적인 동기요인들의 개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나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각기 다른 정도의 자기결정성을 나타내는 즉, 아무 동기가 없는 무동기로 시작하여 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적조절로 분류할 수 있다(Deci & Lyan, 2000). 학생들의 동기가 학습에 대한 내적 인식과 외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이러한 설명은 학생들이 학업수행 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자율성과 통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2) 학업동기와 성, 성적, 학년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학업동기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율적 동기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가 높고(김아영, 2002; 류지현, 임지현, 2008; 박현정, 2008; 심우엽, 2001; 이미봉, 2002; 임은미, 1998; 조미량, 2005; 최정미, 2014; Ryan & Deci, 2002; Vasnsteenkiste et al, 2005),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율동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아영, 2008; 임은미, 1998),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율동기가 더 높다고 밝혔다(임은미, 1998; Vallerand et al,1992).

한편 지금까지 진행된 학업동기와 진로 성숙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학업동기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 특히 진로태도 성숙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

다(김종운, 김지현, 2008; 백연옥, 심혜숙, 2015; 이문희, 신효정, 2015; 조미량, 2005; 최정미, 2014; 황매향, 임은미, 2004). 황매향과 임은미(2004)는 중·고등학생들의 무동기와 진로성숙도는 부적 상관관계, 내재동기와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남을 보여주었고, 최정미(2014)는 진로성숙도가 자율적 동기와 정적 상관관계, 통제 동기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이 관계는 상위권 집단에서 두드러졌으며, 진로교육을 통한 진로성숙도의 상승은 자기결정 동기의 상승으로 이어져 학업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2. 진로동기

1) 개념과 의미

진로 동기는 진로정체성,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통찰력, 적대적인 진로상태에 직면할 때의 탄력성을 반영하는 개인적 특성이며(London, 1983; 1997), 진로와 관련하여 능력자체로 설명되지 않는 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진로동기를 구성하는 3가지 하위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진로정체성은 동기의 방향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일로써 자신을 정의하는 정도로 일 몰입, 조직몰입(Blau, 1988)과 유사한 개념이다. 진로정체성이 높을수록 진로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의 진로를 위해 몰두하고 헌신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진로통찰력은 동기의 각성을 위한 요소로써 자신과 진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지한 것을 목표수립에 대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직업적 자기개념(Super, 1953)과 유사하며, 진로통찰력이 높을수록 진로관련 정보를 추구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셋째, 진로탄력성은 동기의 유지 요소로써 불리한 조건일 때조차도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직업적응이론의 유연성(Dawis & Lofquist, 1984) 개념과 유사하다.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신과 위협 감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높은 적응력을 보여준다(London, 1983; 1997).

진로동기에 대한 초기 연구는 직무 몰입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직 내 지원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여 재직자들의 진로동기를 높일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며, 진로동기가 높은 사람들은 장애 상황을 학습 기회로 전환시키려 노력하고(London & Mone, 1987), 자신의 진로에서의 문제점을 지각하고 개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며(London, 1997), 진로개발을 위한 지속학습 활동의 참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Noe & Ford, 1992). 진로동기가 개인의 진로관련 행동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진로분야에서의 성공을 매개하는 내적 동기로서의 가능성을 점차 인정받고 있지만(Day & Allen, 2004),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진로동기는 학업동기에 비해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동기는 재직자들 뿐만 아니라 전생애적 진로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동기관련 연구에서는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이예진, 이기학, 2010), 역량(안운정, 문윤경, 2014), 진로스트레스(안운정, 서지윤, 2003), 진로미결정(이현주, 2011a,b),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김보경, 2012) 등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진로이론이 진로 자아개념, 진로 의사결정, 진로태도 성숙도 등 진로와 관련된 인지나 태도 측면을 다루었다면, 진로몰입 및 진로동기의 개념은 진로행동을 취하는 개인의 정서적 관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진로 이론들과의 차별성이 있다(유현실, 2013). 진로동기 중 진로정체성은 진로태도 성숙도의 결정성과 목적성, 진로통찰력은 진로태도 성숙도의 준비성, 진로탄력성은 진로태도 성숙도의 확산성과 독립성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진로동기는 상황적 변인 즉 환경의 압력이나 지지에 의해 비교적 쉽게 변화 가능한 특성이고, 진로태도 성숙도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진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로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비교적 안정된 특성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동기와 성, 성적, 학년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51개국의 1400여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Lopes(2006)의 연구에서는 진로동기의 남녀차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연령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많은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초년생에 비해 진로통찰력과 진로정체성이 높았고, 진로탄력성 수준이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남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진로탄력성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진로결정 상황에서 진로동기의 매개효과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고, 남학생의 진로탄력성이 여학생보다 높으며(안운정, 문윤경, 2014), 전반적인 진로동기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고(Tohidi, 1984),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동기가 높다는 결과(안운정, 문윤경, 2014, London, 1983)도 존재한다. 한편 캐나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진로동기가 높다고 보고한 Holms & Esses(1988)의 연구를 제외하고 성적과 진로동기 관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진로동기에 대한 성, 연령, 성적에 따른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진로동기와 진로태도성숙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진로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진로에서의 문제점을 지각하고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미래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음(London, 1997; Noe & Ford, 1992)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로태도 성숙도와와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3.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에 따른 집단분류

지금까지 학업동기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연구(김아영, 2002; 서은희, 김은경, 2013; 임지현, 2007; Hayamizu, 1977; Ratelle et al, 2007; Vansteenkiste et al, 2009)에서는 자율동기가 높은 집단이 최적의 학습패턴과 교사의 지지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밝혀주었다. 이에 비해 진로동기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 연구는 이예진과 이기학(2010)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수준으로 진로동기를 구분한 이예진과 이기학(2010)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수준이 모두 높은 '통합된 조절형', 내재적 동기를 추구하는 '내적 조절형',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수준이 모두 낮은 '외적 조절형'으로 집단이 구분되고 각 집단별로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근거하여 여성공학도의 맥락적인 상황이 학업동기를 통해 진로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승이, 2009)를 제외하고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 준비의 대부분이 학업수행과 관련되므로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영남, 호남, 충청 지역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남녀공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30여 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희망자에게 실시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수령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령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수거된 설문지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다수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외한 509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 및 학년, 성을 설문문항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성 및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1학년	2학년	전체
남	130(51.4)	122(44.7)	252(49.5)
여	123(48.6)	134(52.3)	257(50.5)
전체	253	256	509

2. 측정도구

1) 학업동기 척도

연구대상의 학업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아영(2008)의 '한국판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 (K-SRQ-A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im et al(2004)이 Ryan과 Connell(1989)의 '자기조절 설문지-학업'을 번안하여 한국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에 Vallerand와 Bissinnette(1992)의 학업동기 척도의 무동기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한 것으로 무동기, 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동기의 5요인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척도이다.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결핍된 상태를 나타내는 '무동기' 6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결정성이 부족한 상태로 보상 또는 처벌 같은 전형적인 외적제약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외적조절' 6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자기 의지의 개입이 시작되지만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거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한 자존감에 기초한 압력에 의해 공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사된 조절' 6문항(문항 예: 나는 선생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공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나타내는 '확인된 조절' 6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공부한다), 과제자체에 대한 관심과 만족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으로 공부가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재적 동기' 6문항(문항 예: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무동기 .84, 외적조절 .82, 내사된 조절 .84, 확인된 조절 .85, 내재적 동기 .89로 나타났다.

2) 진로동기 척도

연구대상의 진로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보경(2012)의 진로동기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ay & Allen(2004), London(1983), Noe et al.(1990)의 진로동기 척도를 번안하여 문항을 구

성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개발된 것으로,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 진로 탄력성의 3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에 대해 인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 가치관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을 나타내는 '진로정체감' 5문항(문항 예: 지금 나는 미래 직업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진로환경을 현실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진로통찰력' 5문항(문항 예: 나는 직업 분야에 있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안다),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래 자신이 세운 진로 목표를 상황에 맞게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진로탄력성' 6문항(문항 예: 진로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통일성을 위하여 6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에 명료화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1문항(수정 전: 나는 나의 직업적 위치에 대한 뚜렷한 상을 가진다. → 수정 후: 나는 직업지위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진로정체성 .92, 진로통찰력 .87, 진로탄력성 .84이다.

3) 진로태도 성숙도 척도

연구대상의 진로태도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 한종철(1997)이 개발한 진로태도 성숙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이 진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진단적 목적과 진로태도 성숙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인에게 적절한 진로교육을 실시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으로,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의 5요인 47문항(역문항 26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성' 10문항(문항 예: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참여 정도를 나타내는 '준비성' 9문항(문항 예: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갖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 한다), 자신의 진로 문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독립성' 9문항(문항 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결국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개인이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목적성' 8문항(문항 예: 직업을 선택할 때 일의 성격보다는 승진기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역문항),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에 대해 앞으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확신 정도를 나타내는 '확신성' 8문항(문항 예: 아무리 노력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역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통일성을 위

하여 6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하위 요인별 신뢰도(Cronbach α)는 결정성 .90, 준비성 .81, 독립성 .85, 목적성 .88, 으로 적절하였으나 확신성은 .65 였다. 이에 확신성 문항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내가 선택한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잘 할 자신이 없다'는 문항을 제거하자 신뢰도가 .82로 증가하여 이 문항을 제거하고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술 통계치와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하위집단의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MANOVA)과 χ^2 검정을 시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문항의 왜도, 첨도가 ± 2.0 이하로 나타났고, 하위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 2.0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간의 상관행렬은 <표 3>과 같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p < .01$ 또는 $p < .05$)를 보이고 있으나, 학업동기 중 내사된 동기와 진로동기의 세 요인, 학업동기 중 외적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 요인인 준비성, 학업동기 중 확인된 동기와 내재적 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요인인 독립성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진로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상관(.13~.70)이 있고, 학업동기 중 무동기와 외적조절은 진로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요인 대부분에 유의한 부적상관(-.11~-.34)을 나타나고 있으며,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동기는 진로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요인 대부분에 유의한 정적상관(.10~.30)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509)

측정 변인	하위요인(1-6점)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업 동기	무동기	3.10	1.06	.34	-.37
	*통제 외적조절	2.33	.86	.47	-.16
	동기 내사된 조절	3.17	1.04	.05	-.41
	*자율적 확인된 조절	3.59	.95	-.47	.19
	동기 내재적 동기	3.12	.99	-.02	-.27
진로 동기	진로통찰력	4.34	1.14	-.45	-.30
	진로정체성	4.21	.94	-.19	-.05
	진로탄력성	4.10	.90	-.16	.10
진로태도 성숙도	결정성	3.86	1.07	1.14	-.65
	준비성	4.33	.72	-.21	.02
	독립성	4.44	.83	.09	-.82
	목적성	3.87	.98	.02	-.33
	확신성	3.48	.80	.39	.61

*석희정(2015), 최정미(2014), Vansteenkiste et al. (2005)는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을 종합하여 통제 동기로, 확인된 조절과 내재동기를 종합하여 자율적 동기로 명명한 바 있다. 뒤이어 소개될 본 연구의 군집분석결과에서도 이들 연구들의 명명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연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서 밝혀두기로 하였다.

2.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군집분석

일반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동기 하위변인인 무동기, 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확인된 조절, 내재적 동기와 진로동기의 하위변인인 진로 통찰력, 진로정체성, 진로탄력성에 따라 몇 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방법의 절차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s의 위계적 군집 분석을 통해 군집의 수를 확인 한 후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평균 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군집 1(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은 183명, 군집 2(높은 무동기 집단)는 127명, 군집 3(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은 199명으로 분류되었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을 명명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점수를 표준화(평균=0, 표준편차=1)하였으며, 군집별 다변량 분산분석과 군집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에서 공분산 행렬에 대한 Box의 동질성 검증 결과 동질성 가정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Pillai의 트레이스는 1.179(F(16, 1000)=89.76, $p<.001$), Wilks의 람다는 .167 (F(16, 998)=90.47, $p<.001$)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군집별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하위요인에 대한 변량 분석 결과는 <표 4>과 같으며,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3> 하위요인들의 상관행렬(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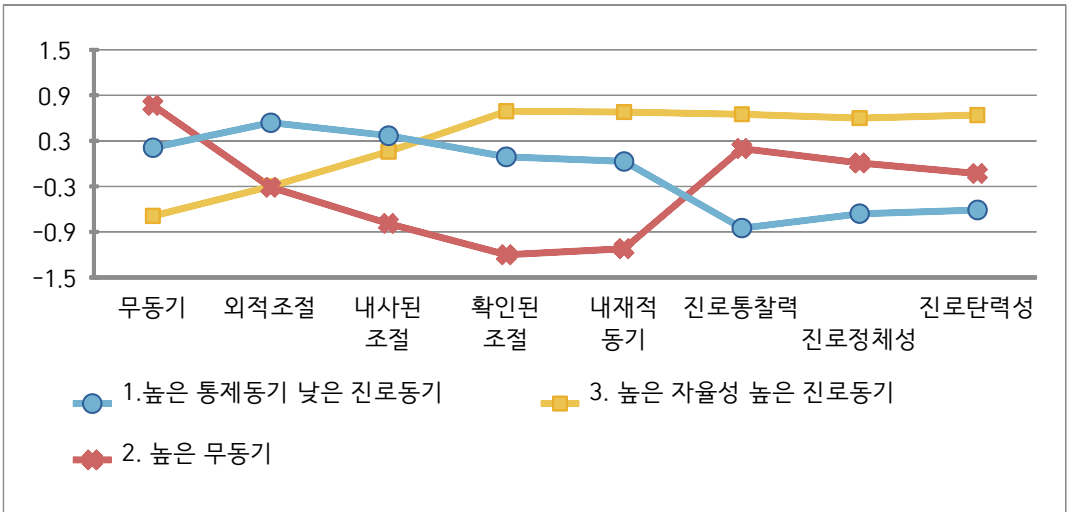
	무동기	외적 동기	내시된 동기	확인된 동기	내재적 동기	진로동기 정체성	진로동기 통찰력	진로동기 탄력성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
무동기	1												
외적동기	.33**	1											
내시된동기	-.11*	.53**	1										
확인된동기	-.52**	-.02	.37**	1									
내재적동기	-.51**	-.03	.29**	.83**	1								
진로동기 정체성	-.16**	-.18**	-.02	.16**	.16**	1							
진로동기 통찰력	-.20**	-.18**	-.00	.18**	.20**	.65**	1						
진로동기 탄력성	-.23**	-.19**	-.06	.29**	.30**	.57**	.61**	1					
결정성	-.20**	-.22**	-.12**	.11*	.11*	.70**	.50**	.49**	1				
준비성	-.19**	-.07	.26**	.29**	.24**	.46**	.47**	.38**	.30**	1			
독립성	-.11*	-.33**	-.19**	.07	.05	.44**	.31**	.30**	.50**	.30**	1		
목적성	-.16**	-.34**	-.24**	.10*	.10*	.26**	.16**	.13**	.45**	.10*	.51**	1	
확신성	-.24**	-.25**	-.17**	.20**	.23**	.28**	.30**	.54**	.42**	.11*	.32**	.29**	1

**p<.01, *p<.05

<표 4>표준화된 최종 군집별 중심점(군집 3개)

변인	군집1(n=183)		군집2(n=127)		군집3(n=199)		F	scheffe	
	1. 높은 통제동기, 낮은 진로동기		2. 높은 무동기		3. 높은 자율성, 높은 진로동기				
	M	(SD)	M	(SD)	M	(SD)			
무동기	.21	.76	.77	.97	-.69	.74	135.82***	3<1<2	
통제동기	외적 조절	.54	.91	-.31	.95	-.30	.90	49.15***	2,3<1
	내사된 조절	.37	.73	-.79	.88	.16	1.02	68.83***	2<3,1
자율적 동기	확인된 조절	.09	.65	-1.20	.75	.69	.65	302.75***	2<1<3
	내재적 동기	.03	.69	-1.12	.65	.68	.77	248.97***	2<1<3
진로통찰력	-.85	.76	.20	.94	.65	.59	195.45***	1<2<3	
진로정체성	-.66	.77	.01	.99	.60	.80	107.80***	1<2<3	
진로탄력성	-.61	.76	-.13	.98	.64	.79	107.53***	1<2<3	

*** p<.001



[그림 1] 동기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군집 프로파일

[그림 1]을 살펴보면, 군집1은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이 높고, 진로 동기는 하위요인모두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을 통합한 통제 동기와 확인된 조절과 내재동기를 통합한 자율적 동기의 개념을 도입한 선행연구(석희정, 2015; 최정미, 2014; Vansteenkiste, et al, 2005)를 토대로 이 군집을 ‘높은 통제 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으로 명명하

었다. 군집2는 <표 4>를 살펴보면 무동기의 표준화 평균 점수가 .77로 나타나 높은 무동기를 특징으로 하는 '높은 무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진로동기의 하위 요인 중 진로 통찰력은 평균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학업 동기는 무동기 이지만 진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학생이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내준다. 군집3은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동기가 높고, 진로 동기는 하위 요인모두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진로에서도 적극적으로 탐색하려는 특징을 갖는 이 군집을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 성, 성적, 학년에 따른 군집분포의 차이

추가적인 군집별 특성을 보다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군집에서의 성, 성적, 학년특성에 대한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고, 성과 성적에 따라 군집 간 차이가 있었지만 학년 특성에 따른 군집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군집별 성, 학년, 성적 특성 교차표 (성적 15명 무응답)

		총동기군집 n(%)			전체	유의확률
		1. 높은 통제동기, 낮은 진로동기	2. 높은 무동기	3. 높은 자율성, 높은 진로동기		
성	남	95(51.9)	73(57.5)	84(42.2)	252(49.5)	$\chi^2=7.89$ (df=2, p=.019)
	여	88(48.1)	54(42.5)	115(57.8)	257(50.5)	
학년	1	90(49.2)	57(44.9)	106(53.3)	253(49.7)	$\chi^2=2.21$ (df=2, p=.331)
	2	93(50.8)	70(55.1)	93(46.7)	256(50.3)	
등급	1~2	26(14.7)	7(5.8)	54(27.6)	87(17.6)	$\chi^2=56.61$ (df=6, p=.000)
	3~4	83(46.9)	42(34.7)	100(51.0)	225(45.5)	
	5~6	55(31.1)	55(45.5)	35(17.8)	145(29.4)	
	7~9	13(7.3)	17(14.0)	7(3.6)	37(7.5)	
전체	성, 학년 / 등급	183/177	127/121	199/196	509/494	

군집1은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성적이 3~6등급인 학생이 78.2%, 1~2등급인 학생이 14.7%를 차지하였고, 군집2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많으며 성적이 3~6등급인 학생이 80.2%, 6등급~9등급인 학생이 14%를 차지하였으며, 군집3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고 성적이 1~4등급인 학생이 78.6%, 5~6등급인 학생이 17.9%를 차지하고 있었다.

4. 군집별 진로태도 성숙도의 차이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집단이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위 요인인 결정성, 준비성, 독립성, 목적성, 확신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질성 검증에서 동질성 가정은 충족되지 않았으나, Pillai의 트레이스는 .445($F_{(10, 1006)}=28.76, p<.001$), Wilks의 람다는 .585 ($F_{(10, 1004)}=30.88, p<.001$)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진로태도 성숙도 하위요인에 대한 군집 간에 차이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군집별 진로태도 성숙도에 대한 차이검증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의 경우 군집1이 가장 낮고, 군집 3이 가장 높았으며, 준비성인 경우 군집1과 2에 비해 군집 3이 높았으며, 독립성인 경우 군집1에 비해 군집2와 군집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태도 성숙도의 군집 간 차이(군집 3개)

변인	군집1(n=183)		군집2(n=127)		군집3(n=199)		F	scheffe
	1. 높은 통제동기, 낮은 진로동기		2. 높은 무동기		3. 높은 자율성, 높은 진로동기			
	M	(SD)	M	(SD)	M	(SD)		
결정성	3.12	.73	4.05	1.10	4.42	.91	102.34***	1<2<3
준비성	4.06	.67	4.15	.72	4.70	.61	51.56***	1,2<3
독립성	4.02	.67	4.59	.88	4.74	.77	45.42***	1<2,3
목적성	3.54	.76	3.89	1.12	4.16	.98	20.79***	1<2<3
확신성	3.17	.57	3.38	.81	3.84	.85	39.38***	1<2<3

***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 수준에 따른 하위 집단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 영남, 호남, 충청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509명의 설문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조합에 따른 세 하위 군집이 탐색되었다. 세 군집에 대하여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특징에 따라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 ‘높은

무동기' 집단,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은 학업동기에서 외적 조절과 내사된 조절이 높고, 진로 동기에서 하위요인 모두 평균보다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183명(36.0%)의 학생이 여기에 속하였다. '높은 무동기' 집단은 다른 군집에 비해 학업동기에서 무동기 점수가 높은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127(25.0%)명의 학생이 여기에 속하였다.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은 학업동기도 자율적이며, 진로동기도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하며, 199(39.0%)명의 학생이 여기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외적 조절형-낮은 진로준비행동, 내적 조절형-중간 진로준비행동, 통합된 조절형-높은 진로준비행동의 집단을 추출한 이예진, 이기학 (2010)의 연구결과와 함께 청소년의 학업동기와 진로특성을 종합하여 군집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군집화는 개인차를 단순화시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처치의 가능성을 열 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지도의 현장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둘째, 세 군집에서 성과 성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학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높은 무동기' 집단에서는 남학생(57.5%)이 더 많았고,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에서는 여학생(57.8%)이 더 많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율동기가 더 높은 것(임은미, 1998; Vallerand et al, 1992)으로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남학생이 진로동기가 여학생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안윤정, 문윤경, 2014; Tohidi, 198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결과가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조합으로 인해 나타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군집별 성적분포를 살펴보면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에서 상위권(1~2등급)학생이 27.6%이고, '높은 무동기' 집단에 하위권(7~9등급)학생이 14.0%로 다른 군집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업동기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아영, 2002; 류지현, 임지현, 2008; 박현정, 2008; 심우엽, 2001; 이미봉, 2002; 임은미, 1998; 조미량, 2005; 최정미, 2014; Ryan & Deci, 2002; Vasnsteenkiste et al, 2005)와 진로동기와 학업성취도의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Holms & Esses, 1988)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높은 자율성-높은 진로동기' 집단에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5~6등급) 학생들이 17.8%에 이르고 특히 7-9등급의 하위권 학생도 3.6%나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 모두에서 높은 동기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낮은 성적에 대하여 부족한 능력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귀인하여 자신감이 낮아지거나 동기 자체가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Ormrod, 2008).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에서는 상위권과 중상위권(1~4등급) 학생들이 61.6%를 차지하였다. 이는 자율성이 높지 않은 학생들이 학업의 중요성에 대한 중요타자들의 강조로 인해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으나 중요타자들의 강조가 상대적으로 덜한 진로발달을 이루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들에게는 성적의 흐름이나 진로에 대한 학생 자신의 생각들을 탐색하고 진로 발달을 격려하며, 단기적으로 성적상승에 대한 압력을 주기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로와 학업동기의 자율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높은 무동기’ 집단에는 하위권(7~9등급) 학생이 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에서 하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7.5%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의 수치이다. 이 학생들의 진로동기는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특히 진로통찰력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부 이외의 다른 역량이 더 필요한 진로(예, 예체능이나 기타 기술관련 분야 등)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보이면서 자신과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집단의 학생들은 먼저 진로탐색 및 명료화를 돕고 학업과 진로와의 연관성을 학생과 함께 탐색하여 학업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한편 ‘높은 무동기’ 집단에 속한 학생 중 5.8%의 학생의 성적이 1~2등급이라는 점은 무동기와 낮은 학업성취도의 관련성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김아영, 2002; 류지현, 임지현, 2008; 박현정, 2008; 임은미, 1998; Ormrod, 2008; Ryan & Deci, 2002; Vasnteenkiste et al, 2005)을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관찰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동기와 학업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낮은 동기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유지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군집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동기가 높다(안윤정, 문윤경, 2014; London, 1983; Lopeze, 2006)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령의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군집별 학년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세 군집 별로 진로태도 성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동기가 진로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김보경, 2012; 안윤정, 문윤경, 2014; 이예진, 이기학, 2010; 이현주, 2011a, b; Noe & Ford, 1992)과 유사하다. 그러나 학업동기의 자기 결정성이 진로성숙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김종운, 김지현, 2008; 백연옥, 심혜숙, 2015; 이문희, 신효정, 2015; 조미량, 2005; 최정미, 2014; 황매향, 임은미, 2004)과 달리 학업동기와 진로동기를 조합한 군집에서는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이 ‘높은 무동기’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진로태도 성숙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진로동기가 낮은 학생의 경우 학업에서의 무동기보다 통제동기가 오히려 진로성숙을 저해하는 억압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

‘높은 무동기’ 집단의 진로동기 특히 진로통찰력이 ‘높은 통제동기-낮은 진로동기’ 집단보다

높다는 결과는 이 집단이 학교공부 이외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표집이 일반계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공부와 직결되지 않는 분야로 진로목표를 세운 경우 교과과정에서 의미를 찾기는 힘들 수 있다. 이런 학생의 경우 분명한 진로목표와 관련된 고등학교로의 전학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변경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외에 진로관련 활동에는 흥미를 보이면서 참여하지만 학업 동기는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세우도록 돕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업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변인간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동기와 진로태도성숙도의 모든 하위 변인 간 유의한 정적상관($p < .01$)이 나타났다. 특히 진로동기의 하위요인인 진로 정체성과 진로태도 성숙도의 하위요인인 결정성에서 나타난 높은 상관(.70)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가지는 것과 진로를 이미 결정하고 준비할 가능성은 높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진로동기 탄력성과 진로태도 성숙도 중 확신성(.54) 및 결정성(.49)의 높은 상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결정하고 확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진로태도 성숙도와 진로동기의 높은 상관은 비록 정서적 관여나 안정성 면에서 두 개념이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업동기와 진로동기를 조합한 세 군집에서 나타나는 진로태도 성숙도의 차이가 진로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의 높은 상관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로동기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로동기의 개념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차후로 진로동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생애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동기의 자율성과 진로동기 및 진로태도 성숙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동기의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진로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종운, 김지현, 2008; 백연옥, 심혜숙, 2015; 이문희, 신효정, 2015; 조미량, 2005; 최정미, 2014; 황매향, 임은미, 2004)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업동기 중 확인된 조절, 내재적 동기와 진로태도 성숙도 중 독립성과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학업에서의 자기결정성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주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 고등학생의 학업동기와 진로동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동기와 진로동기를 조합한 차별적인 특성을 지닌 군집을 발견하였고, 군집 특성 및 군집별 진로태도 성숙도의 차이를 밝혔다. 이는 전생애적 진로발달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발달과 진로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학교 현장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 특징을 함께 고려한 차별적인 처치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생의 심리적 변인인 동기에 국한하여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의 특성을 탐색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환경적인 변인을 함께 고려한 집단분류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진로성숙도 뿐 아니라 학교생활 만족도 등의 종속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이 1, 2학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진로결정과 행동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3학년의 특징을 포함하지 못하였고, 일반계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하여 진행되거나, 다른 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유선, 조은애, 김양희(2011). 학업우수 고등학생이었던 대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활연구**, 17(2), 1-16.
- 김보경(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아영(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1), 5-36.
- 김아영(2008). 한국청소년의 학습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별호), 111-134.
- 김아영(2010). **학습동기: 이론연구와 적용**. 학지사.
- 김유미, 권윤정(2015). 개인 및 부모자녀관계 요인이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다층 모형의 적용. **인간발달연구**, 22(2), 93-111.
- 김종운, 김지현(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1(2), 127-143.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도승이(2009). 여성공학도의 역할모델과 성역할기대, 학습동기, 진로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3(4), 769-785.
- 류지현, 임지현(2008).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용인이 인지전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검증. **교과교육학 연구**, 12(1), 219-238.
- 박현정(2008). 학습동기, 자아개념, 학업성취간 관계의 집단간 동등성 분석: PISA 2006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21(3), 43-67.
- 백연옥, 심혜숙(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교육혁신연구**, 25(1), 59-74.
- 서은희, 김은경(2013). 자기결정성동기 프로파일에 따른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차이. **교육심리연구**, 27(2), 395-407.
- 석희정(2015). 중학생의 생애목표와 기본심리욕구 및 진로태도 성숙도와의 관계: 자율 및 통제동기의 매개된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손진희(2010). 청소년기 학업우수 남학생의 대학 재학시 진로결정 영향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8(2), 187-204.
- 신경일, 김서정(2016). 교사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420-431.
- 심우엽(2001).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 19-44.
- 안윤정, 문윤경(2014).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변화인식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35-161.
- 안윤정, 서지윤(2013). 일희망과 진로동기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연구**, 20(11), 55-81.
- 유현실(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 연구**, 14(1), 423-439.
- 이기학, 한종철(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 이문희, 신호정(2015). 부모의 학업지지와 자녀의 진로성숙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한국교육학연구**, 21(3), 131-151.
- 이미봉(2002).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조절 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예진, 이기학(2010). 진로동기 수준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이현주(2011a). 자아핸디캡전략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남녀 차이. **인문논총** 28, 27-38.
- 이현주(2011b). 진로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한 고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교육교원**, 27(4), 95-116.
- 임은미(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은미(2004). 초등학생의 진로 성숙도 발달에 대한 단기 종단 연구. **상담학 연구**, 5(3), 667-680.
- 임지현(2007).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른 동기유형과 학업성취, 학업유능감, 자기조절학습 능력과의 관련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정철영(2011).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및 경력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서울.
- 조미량(2005).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조봉환(2015).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46.
- 조은숙(2011). 청소년 인턴십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4(4), 191-208.
- 최정미(2014).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기결정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최화영(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미래지향 시간관, 자기통제력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 인과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황매향, 임은미(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Blau, G. J.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824-2,97.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Ca. CTB/McGraw-Hill.
-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ay, R., & Allen, T. D.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ege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1), 72-91.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m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p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amizu, T. (1977).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Examination of reasons for academic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internalization. *Japanese Psychology Research*, 39, 98-108.
- Holms, V. & Esses, L.M.(1988). Factors influencing Canadian high school girls' career motiv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3), 313-328.
- Kim, A., Koh, K., & Ryan, R. M. (2004). *Investigating the underlying construct of academic self-regulation in Korean students. Paper presented at the seco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May, Ottawa, Canada.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4). 620-630.
- London. M. (1997).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1), 61-80.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Jossey-Bass.
- Lopes, T. (2006). Differences in dimensions of career motiv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graduate students by age and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Noe, R. A., & Ford, J. K. (1992). *Emerging issues and new directions for training research*. In G. Ferris. & K. Rowland(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Greenwich. CT: JAI Press.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340-356.
- Ormrod. J. E. (2008). *Human Learning* (5th Ed.). Pearson Education. 황매향, 임진영, 임은미, 김인규, 여태철, 윤경희(2009). **인간의 학습**. 시그마프레스.
- Ratelle, C. F., Guay, F., Vallerand, R. J., Larose, S., & Sene'cal, C. (2007). Autonomous, controlled, and amotivated types of academic motivation: A person-motivated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734-746.
- Ryan, R. M., & Connell, J. P.(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 Psychological, 8*, 185-190.
- Tohidi, N.(1984). Sex difference in achievement/career motivation of Iranian boys and girls. *Sex Roles, 11*(5/6), 467-484.
- Vallerand, R. J., & Bissinette, R.(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bi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 599-620.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ere, N. M., Senecal, C., & Vallie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Vansteenkiste, M., Sierens, E., Soenens, B., Luyckx, K., & Lens, W. (2009). Motivational profiles from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The quality of motivation matt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671-688.
- Vansteenkiste, M., Zhou, M., Lens, W., & Soenens, B. (2005). Experiences of autonomy and control among chinese learners: vitalizing or immobiliz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 468-483.

-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2차 심사 2016년 5월 3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3일

- * 강예정: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khj-0520@hanmail.net

- * 강성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 취득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전북사대부설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sung5753@hanmail.net

- *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심리 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역서로는 진로상담이론(공저, 2010, 학지사), 다문화 상담(공역, 2011, 학지사) 등이 있다.
* E-mail: tgeunmi@hanmail.net

Abstract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Clustering by Academic Motivation and Career Motiv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Kang, Hye-Jeong*
Kang, Seong-Hyeun**
Lim, Eun-M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lusters by two dimensions of academic and career motivation and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o achieve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on male (N=253) and female (N=256)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Youngnam, Chungcheong and Honam province in South Korea. The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nd MANOVA were as follows; Academic and career motivation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clusters, showing the presence of three distinct clusters: 'high control motivation - low career motivation' group, 'high amotivation' group, 'autonomy-high career motivation' group. Als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groups' career attitude maturity as well as gender and grade. Base on these findings, each group's feature-based interven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Academic Motivation, Career Motiv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MANOVA, Cluster Analysis

* First author, Ph.D Candida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Second author, Ph.D Candida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